

긴급점검-흔들리는 표문화수도

젊기능·역할 흐트러진 문화전당

전당만 지으면 끝? ... '문화발전소' 역할은?

전시·공연감독이 조직 총괄하는 방안 추진

5개원 고유기능 해체 ...지역과 소통단절 불보듯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의 문화전당 운영지원분과 위원들은 최근 모임에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복안대로라면 오는 2015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엔지니어링 5개원의 운영 체계가 흐트러져 고유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5개원은 문화창조원·정보원·어린이문화원·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이다.

지원포럼이 눈여겨 본 대목은 기존 전당운영 체계에서 고유한 업무영역을 갖되, 협업체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는 5개원의 구동원리와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창조원, 정보원, 어린이 문화원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시예술감독이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이같은 조직체계를 현재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 문화예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의 운영을 맡기려는 특수법인이다.

지원포럼은 “문화전당의 중심기능인 창조원·정보원·어린이 문화원을

전시예술 감독이 맡아 운영하는 것은 각 원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조직도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도 “공연과 전시를 담당하는 기획자들에게 문화전당 5개원을 맡기는 것은 문화전당의 고유기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문화계는 정부가 이같은 운영체계를 고수하면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문화창조와 향유, 연구와 교류, 교육 등 미래 문화예술과 산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전당 건립효과를 도시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애초 문화전당은 문화발전소로서 문화적 에너지를 광주 전역에 확산하는 거점이었다.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산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 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 문화권 등 7개권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마련한 문화전당 콘텐츠와 운영원리에서 이런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단지, 광주시 동구지역 빈집을 예술가들 작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게 그나마 ‘문화전당권(광주 동구)’과 연계한 사업이랄 수 있다.

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기획이사는 “문화전당이 광주의 7대 문화권



오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현재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창조원·정보원·예술극장 등 주요 건물에 대한 내부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성사업과 단절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만약 특별법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화전당 5개원이 7대문화권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함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문화전당내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문화전당을 짓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 문화인프라를 끌어올리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처절한 저항과 희생을 치르고 맞은 해방의 기쁨



(40) 광복, 그 날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사가 수능시험 필수과목이 되면 청소년의 역사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 또한 논란을 빚고 있으나 오래전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지식이 지금껏 우리의 토대가 된 것을 보면 공교육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은 광복절. 해방의 기쁨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술로 보여준 작가 이쾌대(1913~1965)의 존재는 우리 미술사의 크나큰 축복이다. 작품 ‘군상 I-해방고지(解放高地)’는 처절한 저항과 희생을 치르고 맞은 해방의 기쁨을 장대한 스케일과 파노라마적인 구성으로 그린 그림이다. 하단의 주검이 민중의 고난을 상징한다면 오른쪽 군상은 분노와 해방의 열망을, 나는 듯 달려오는 원정의 두 여인은 해방의 벅찬 감격을 전해주는 듯하다. 이쾌대 그림 속 격동의 현장에 선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은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과도 겹쳐진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삼각산이 일어나 더덕더덕 솟아오를/추고/한강물이 뒤집혀 솟아오를/그날



이쾌대 '군상 I-해방고지'

이/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도 할양이면...”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은 천재화가’ ‘20세기 전반기 남북한을 통틀어 최고란 평가를 받은 화가’로 수식되는 이쾌대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도쿄 제국미술학교를 나와 일제강점기 말 신미술가협회를 이끌면서 올곧은 작가정신을 보여준 화가였다. 월북 작가로서 긴 세월 잊혀졌던 그는 88년 월북 예술가 해금조치 이후, 91년 서울에서 회고전이 열려 미술계에 놀라움을 주었다. ‘군상 I-해방고지’를 비롯해 회고전을 통해 소개된 작품들은 화가가 북으로 간 이후 그의 아내가 남편의 육신을 대하듯 온갖 감시와 어려움 속에서 꼭꼭 감추어두고 보관해 왔다고 한다. 화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근대 미술의 중요한 지점이 영영 공백으로 남았을 지도 모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때아닌 '광주 민간공항 이전' 설전

국회 정책협의회 자리 '술렁'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동철·박해자 의원이 14일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내년도 국회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강 시장은 국회 상임위별로 광주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의원들도 역할을 나눠 최선을 다할 뜻을 보였다.

설전은 예산 논의가 끝나고 강 시장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잡음을 설명하는 말미에 박해자 의원이 “중요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 시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이때 김동철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답변

박해자 의원 “중요 현안이니 논의하자”

강운태 시장 “의원들이 협조해달라”

김동철 의원 “군·민간공항 함께 이전해야”

강운태 시장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박해자 의원 “그럼 ... 다음에 얘기하자”

뒤 “박 의원은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이어 “군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그대로 두면 전남에서 났겠느냐”며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개월 후면(광주까지의) KTX가 완공된다. (민간공항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느냐”며 “그동안 반대해왔던 관광협회도 이제는 입장이 변해 반대하지 않더라. 민항을 전남에 넘겨주는 전환적인 생각을 하자”고 거듭했다.

그러자 강 시장이 발끈했다. 그는 “이 주제는 시장이 논의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박 의원이 며칠 전에 논의하자고 해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다”고 배경설명을 한 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는 국내, 무안은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고 광주시민의 여론도 광주공항 존치가 훨씬 높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또 “광주에서 제주, 광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승객들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당장 옮기자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다”고 맞섰다. 그리고 자리가 술렁거리자 박 의원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의 보좌관은 “강 시장 입장에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광주공항을 지역 구로 둔 김 의원과 인접 지역구의 박 의원은 공항 이전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어서 의견이 충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호남 4·19총연합회 '세계수영선수권 정부예산 지원'

호남지역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웅)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유치한 수영대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은 타 시도와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집행에 대해 월권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호남권 대표 죽이기’ 또는 ‘호남 경제 해체론’ 등 각종 음모론이 유포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현 정권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광주시는 과감히 수영대회 유치를 반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정부와 국민이 할 것이며 150만 광주시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2013 추석맛이 팔도 농특산물 큰잔치

Paldo's Special Offers Event for Thanksgiving Day

9.10(화) ~ 12(목) 3일간 서울시청광장 특설전시장

주최·주관 _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경인일보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사 釜山日報社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_220_0555